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이스라엘에 개소

현대차, AI 스타트업 투자로 기술 확보 박차

현지 전문업체 '알레그로 ai'와
고도화된 AI 기술 확보 나서

향후 獨·中에도 센터 확충
글로벌 5대 혁신 거점 마련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는 이스라엘에 세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인 '현대 크래들 텔아비브'를 개소하고 현지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인 '알레그로.ai'에 전략투자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 크래들 텔아비브는 미국의 '현대 크래들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제료원'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센터로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이 모여있는 텔아비브 시내 사로나(sarona)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인공지능 분야 등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현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이스라엘의 유력 스타트업 알레그로.ai에 투자를 단행하고 고도화된 AI 기술 확보에 나선다. 2016년 설립된 알레그로.ai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업체다.

알레그로.ai는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 하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분야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알레그로.ai와 미래기술 및 품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루비 첸 현대 크래들 텔아비브 사무소장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현과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라며 "이번 투자로 이스라엘 내 혁신기술 분야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했다. 지난달 말 전략 기술본부 산하에 인공지능을 전담할 별도 조직인 'AIR Lab'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전문가 김정희 이사를 '네이버랩스'로부터 영입했다.

'AIR Lab'은 ▲생산 효율화, ▲프로세스 효율화, ▲고객경험 혁신, ▲미래차량 개발, ▲모빌리티 서비스, ▲서비스 비즈니스 등 현대차그룹의 '6대 AI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는 향후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에도 각각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확충해 글로벌 5대 혁신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스피드웨이, 車 복합문화 공간으로

레이싱체험·신차출시행사 등 진행
16일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개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AMG 스피드웨이로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AMG 스피드웨이는 벤츠 코리아가 지난 5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제휴협력을 개정한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전용 트랙이다. 현재 레이싱 체험, 마케팅 이벤트, 신차 출시 행사, 내부 교육의 장 등을 실시하며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6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메르세데스-AMG만의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개강해 고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독일 메르세데스-AMG 본사에서 개발한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 고객들이 AMG 차량에 탑승해 안전 운전과 레이싱에 관련한 다양한 주행 기술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



AMG 스피드웨이를 달리는 벤츠 차량들의 모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AMG 본사의 인증을 받은 국내 전문 강사진들이 참가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춰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먼저 'AMG 퍼포먼스'와 'AMG 포 레이디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더불어 벤츠 코리아는 신차 출시를 통해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9년에는 메르세데스-AMG가 독자 개발한 최초의 4-도어 스포츠카 더 뉴 AMG GT 4-도어 쿠페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제주항공, 누적 매출 9419억 국적 LCC 첫 '1조 클럽' 눈앞

3분기 영업익 378억, 매출 3501억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만형인 제주항공이 1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3501억원과 영업이익 378억원, 당기순이익 311억원을 기록하며 2014년 3분기 이후 17분기 연속흑자를 실현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3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 6.4%, 3.7%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연간누적실적보다 높은 10.8%를 기록했다.

누적실적은 매출액 9419억원, 영업이익 958억원, 당기순이익 84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누적실적은 매출액 28.2%, 영업이익 14.3%, 당기순이익 31.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0.2%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3분기 실적을 감안, 올해 국적 LCC 최초로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은 이 같은 실적 성장의 이유를 경쟁사 대비 공격적인 기단 및 노선 확대 등 선제적 투자에서 찾았다. 보유항공기를 1분기에 1대, 2분기에 2대, 3분기에 3대 등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며 경쟁사 대비 공격적으로 기단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요노선에 대한 증편과 함께 신규노선 개발 역시 가장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양성운 기자

LS전선, 오만 광대역 통신망 사업자 선정

AIIB 첫 통신망 차관 사업 참여
1단계서 최소 수백억 매출 확보

LS전선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첫 통신망 차관 사업에 참여한다.

LS전선은 오만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만 정부의 주도로 국영 통신사인 OBB(Oman BroadBand)가 국가 최초로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수도 무스카트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1단계와 2030년까지 지방으로 확대 구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LS전선은 통신망의 설계와 엔지니어링, 광케이블 공급 등을 맡는다. LS전선

은 인근 카타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 경쟁사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LS전선은 약 2000억원 규모로 파악되는 1단계 사업에서 최소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확보, 2단계는 그 이상의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m6326@

현대차, 고성능 'N' 앞세워 中 시장 노린다

中 국제수입 박람회 참가

고성능 N, 수소전기차 기술력 첫선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의 고성능 자동차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현대차는 6일 중국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해 고성능 라인업 N과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5~10일 열리는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제품 소개 및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해 현지 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행사로 전 세계 28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 자동차 기업을 대표해 참가한 현대차는 약 182평(600㎡)의 전시 공간을 마



6일 중국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 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서 토마스 슈미에라 현대차 상품전략본부장 부사장이 N브랜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

련하는 한편 이날 보도발표회를 통해 고성능 N을 중국 시장에 처음 소개했다. 글로벌 고성능차 시장에서 상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벨로스터 N을 비롯해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i20 WRC, i30 N TCR 차량을 전시했다.

벨로스터 N에 탑재해 3면 LED 영상과 사운드로 차량 성능의 역동성을 체험하는 'N 필 더 필링 익스피리언스' 전시물도 준비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N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SK네트웍스, 3분기 매출 6.6% ↓... 상사·에너지 발목

영업익 413억... 전년비 20% 감소
모빌리티·홈케어 분야는 성장세

SK네트웍스는 3분기 매출액이 3조 5300억원, 영업이익이 413억원이라고 6일 잠정 공시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2.9%, 영업이익 93.7% 성장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각각 6.6%, 20% 떨어진 성적이다.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상사와 에너지 리테일 부문 약세다. 사업별 매출액을 보면 상사가 1조3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에너지 리테일도 12.5% 줄어든 3972억원에 그쳤다. 정보



통신 분야도 전년보다 2.2% 적은 1조 261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에서도 상사는 138억원으로 전년비 33.4%, 에너지 리테일은 무려 76.5%나 적은 20억원을 거두는데 그쳤다. 정보통신분야도 11.1% 줄어든 212억원이었다.

SK네트웍스는 상사와 화학 판매량 감

소 등 글로벌 부문 시황변화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분기별로는 안정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리테일 분야는 비용 증가로 이익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SK네트웍스는 3분기 실적에서 미래 사업 성장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바로 모빌리티와 홈케어 분야다.

카라이프 사업 3분기 매출은 2677억원으로 전년보다 18.3% 성장했다. 렌터카 대수를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영업이익은 117억원으로 1.1% 소폭 늘리는데 성공했다.

/김재용기자 juk@